

V
광도





여수시
변천사

V. 광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광도항은 여수여객선터미널로부터 직선거리로 55.8km 떨어져 있고, 인근의 평도항까지는 8km, 섬사랑호 기항지인 손죽항까지는 15.9km 떨어져 있다.



광도항



구 선착장



남쪽에서 바라본 광도 전경

2) 인구현황

2023년 7월 1일 기준, 광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16세대 2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번 삼산면 조사 대상 도서 중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섬이다. 한때 몇 명도 살지 않았으나, 최근 해상풍력발전 건설 등과 관련해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인구 현황 (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광도	16	20	12	8

3) 토지현황

광도의 총면적은 1km²로 이번 조사 대상 도서 중에서 가장 작다. 해안선 길이는 5.1km이고, 199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은 전답이 0.03km², 임야 0.94km², 대지 및 기타 0.04km²이다.

토지 현황 (km²)

구분	면적	전답	임야	대지 및 기타
광도	1	0.03	0.94	0.04

4) 공공기관

광도 역시 섬이 작아, 소거문도나 평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공기관이 없다.

5) 교육기관

초도초등학교 광도분교

광도에 인구가 증가하자 1964년 3월 1일 광도분교장이 설립되면서 인근 손죽열도 도서 중에서 가장 늦게 분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학생 수 감소로 인해 1991년 2월 28일 분교설립 27년만에 폐교되었다.

1964. 03. 01. 광도분교장 설립

1985. 03. 01. 초도국민학교 광도분교장으로 편입

1991. 02. 28. 광도분교장 폐교



폐교된 광도분교



폐교된 광도분교 정문 (2012)

6) 사회조직

어촌계

광도는 평도와 함께 어촌계를 구성하고 있다.

나. 지형과 환경

광도의 토양과 기후, 주변 조류는 인근의 초도와 비슷하다.

1) 지형

최고봉은 243m이다. 정상부에 소규모 능선이 발달하였으며 남서쪽으로 완사면 지대가 산록에 나타난다.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경상계 유천층군인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kav)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 주위로 주상절리로 이뤄진 암석해안이 발달하였다. 주변에 소두역·대두역 등 작은 섬이 분포한다.



광도전경

(1) 주상절리

현무암질 용암에서 분출하여 흘러내리는 용암이나 응결된 화산쇄설물로 형성된 용결응회암(ignimbrite)과 같은 화산암에서 암석이 냉각되고 수축할 때 규칙적으로 형성되는 수축절리 혹은 냉각절리를 말하며, 절리들로 분리된 암석들의 단면이 4~6각형을 이루는 길쭉한 기둥 모양의 형태를 보여준다. 기둥들의 지름은 수 센티미터부터 수 미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길이는 30m에 달하는 긴 것도 있다. 이 기둥들은 전형적으로 서로 평행하며 직선적이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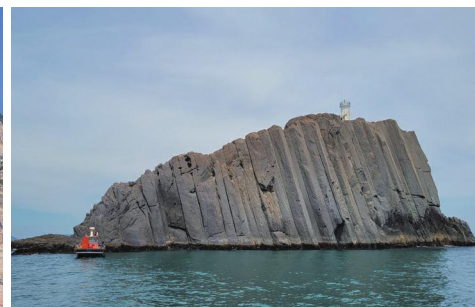
주상절리는 주로 지하 얽은 곳에 관입한 화성암에 인장단열로 형성된다. 흔히 분출 화성암이나 얽은 곳에 관입한 암석에서 모암과 관입암 사이에 열적 수축(thermal contraction)과 냉각으로 열응력(thermal stress)이 작용하면서 형성된다. 높은 온도의 용암이나 응회암이 고화될 때 주변의 모암에 비하여 온도가 훨씬 높아서 열적 수축이 상당히 크게 된다. 두 암석 사이의 용결된 접촉부는 상대적인 변위를 일으키지 못하고, 냉각되면서 두 암석 사이 상당한 열적 응력이 생성된다.



주상절리



주상절리



광도 주변 대두역에 발달한 주상절리

1) [네이버 지식백과] 주상절리 [Columnar joints, 柱狀節理] (지질학백과)

(2) 암석해안

해안에 이르러 급애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반암이 풍화 침식에 노출된 암석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해식애를 비롯한 해안침식 지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식애에서 분리된 거력(boulder)들이 해안가에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2) 주변 환경

광도는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오며 여름철에는 뱀에돔과 돌돔, 가을에서 겨울철에는 감성돔이 많이 잡힌다. 전력과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 대다수가 마을 공동 발전기와 태양광발전기에 의지하고 있으며, 우물물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광도의 서안에 선착장이 있으며, 교통은 광도에서 부정기 여객선인 섬사랑호가 운항 중이다.

3) 주변 도서

섬 주변에는 두래기여, 꺼벽두래기여, 검은여, 작은 검은여, 농여가 발달하였으며, 섬의 서남서 방향으로 평도, 갈퀴섬이 분포한다.



대두역과 소두역



검등여

다. 식생과 생태

1) 생태자원과 식물상

광도에 자생하는 늘푸른넓은잎수종은 우묵사스레피,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생달나무, 후박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자금우, 모람, 남오미자, 돈나무, 개산초, 섬회양목, 차나무 등이 출현하고 있다. 보존이 필요한 지역 특징 종은 보고되지 않았다.

광도에는 41개의 늘푸른넓은잎 수종이 존재한다.²⁾ 광도에는 팔손이나무, 석곡, 풍란 등이 아주 많이 분포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파괴되었으며, 섬 전체에 곰솔이 우점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식생은 섬의 중심으로부터 많은 지역이 곰솔군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늘푸른넓은잎수종인 동백나무군락, 구실잣밤나무군락 등이 출현하고 있으며, 해안 능선을 따라 낙엽넓은잎수종인 소사나무군락이 서식하고 있다. 섬의 일부 지역에는 경작지와 민가가 있고, 휴경지에는 띠군락, 억새군락, 망초군락, 환삼덩굴, 억새군락, 바랭이군락이 출현하였다. 초본식물로는 닭의장풀, 환삼덩굴, 엉겅퀴, 고사리, 우슬, 진득찰, 망초 등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광도에는 삼지닥나무와 긴잎모시풀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이 배(船)에 이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심은 것이라고 한다.

광도의 동북 방향으로 곰솔이 우점종이나 계단식 밭 주변에 선바위고사리, 마디풀, 새완두, 제비꽃, 꿀풀, 비썩, 엉겅퀴, 망초, 솜나물, 땅나리 등이 있고 절벽 쪽으로 노간주나무, 줄참나무, 으름덩굴, 산돌배나무, 예덕나무, 보리장나무 등이 있고 동백나무, 후박나무 등은 과거에 연료로 사용되어 훼손된 것이 많다.

이 지역의 특징종은 상록수종으로 곰솔, 리기다소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붉가시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마삭줄, 까마귀쪽나무, 광나무 등이 있다. 초본류는 바위채송화, 엉겅퀴, 참취, 삽주, 밥풀고사리, 큰까치수영, 머느리밥풀, 골등골나물, 십자고사리, 자란, 참나리 등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외 민가 주변으로 쇠뜨기, 새, 솔새, 쥐꼬리새풀, 질경이, 환삼덩굴, 바랭이, 잔디, 토끼풀, 파리풀, 망초, 개망초, 꽃향유, 맥문동, 자귀풀, 땃대이덩굴, 고마니, 가막사리, 여뀌, 주름조개풀, 띠, 억새, 짚신나물 등의 초본류가 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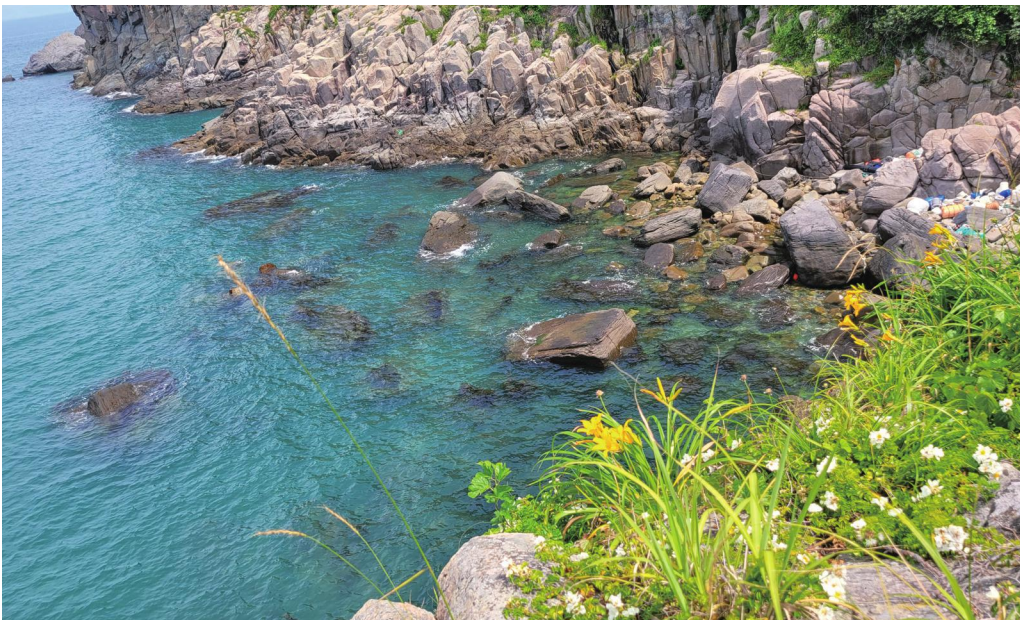
2) 김중삼, 「금오열도의 식생 및 상록 활영수 이용과 그 보존대책」, 1997

2) 광도의 식물 및 식생

선착장에서 내려 마을로 오르는 길은 급경사지로 오르막길의 오른쪽은 천길 낭떠러지다. 그 절벽 위로 원추리군락이 장관이다. 5월에는 원추리가 만개해서 원추리 꽃밭을 인공적으로 일궈 놓은 것 같다.

마을로 짐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의 선로를 따라 왼쪽 길에도 식생이 활기차다. 이대가 방풍림같이 서 있고, 이대 사이로 넝쿨을 감고 올라가는 것은 방기이다. 넓은잎 방기가 길을 따라 가로수인 양 짝옥 늘어서서 이대와 함께 우점종한다. 길 좌우 사이사이로 짙레가 바닥을 기며 하얀 꽃이 활짝 피어 바닥이 하얀 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다. 지피식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팽나무 어린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팽나무도 군락을 이룬다. 주변에 큰 팽나무가 있어 거기서 떨어진 씨앗이 발아되어 온통 팽나무 숲을 이룬다.

팽나무는 누기(漏氣) 있는 땅과 마른 땅의 경계에 주로 산다. 강과 육지의 경계인 자연제방이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인 해안 충적 구릉지에서 자주 발견된다. 우리나라 중남부지방의 온화한 마을 어귀나 중심에서 마을나무나 당산나무로 자리 잡아 전통 민속경관을 특징짓는 대표 종이다.



원추리 군락



수풀이 점령한 폐교



방기

해안지역에 더욱 흔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성한 공간인 당집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³⁾ 장수하는 유전적 특질과 새들의 먹이인 열매를 풍성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영육(靈肉)의 생명 부양 나무로서 소중한 역할을 한다.

팽나무는 물과 공기가 잘 통하는 모래자갈땅에서도 약간 비옥한 곳을 더욱 좋아한다. 느티나무 서식처와 중첩되기도 하지만, 느티나무는 내륙 쪽에 치우쳐 분포한다면, 팽나무는 바닷바람을 쐬 수 있는 곳에 치우쳐 산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섬지역이나 제주도에서 팽나무 노거수가 적지 않게 관찰되는 까닭이다.⁴⁾

위 내용은 팽나무의 생육지와 광도에 팽나무 개체수가 많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대 밭에는 방기와 같이 개머루가 혼생하고 있다. 이대는 선착장에서 마을로 오르는 길 왼쪽으로 마을과 나란히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에서 방풍림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방기와 개머루 잎이 서로 뒤엉켜서 보통 남해안이나 휴경지 등에 생태 우점하고 있는 칙닝쿨이 접근하지 못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식생 분포를 보인다. 번식력이 워낙 강한 칙닝쿨을 마을에서 인위적으로 제한했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다. 이대와 방기가 혼생하는 사이에 보랏빛 꽃이 막 이울고 있는 작살나무가 언뜻언뜻 보인다. 가을에는 이 꽃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랏빛 열매가 익어 영롱하고 귀한 보석같이 아름다움을 뽐내며 길손을 반길 것이다. 밭으로 일구어 경작되던 곳은 이미 오래되어 초지가 되어 있는데 이 초지에는 ‘사상자’군락이 정원의 꽃밭같이 자라고 있다.

3) 장은재·김종원, 『노거수와 생태문화』, 월드사이언스, 2007.

4) [네이버 지식백과] 팽나무 [Chinese hackberry, エノキ, 朴樹] (한국식물생태보감 1, 2013. 12. 30., 김종원)



진득찰



사상자

특히 사람이 지나다니는 소로 주변의 척박한 땅에는 진득찰 개체가 많이 눈에 띈다. 드렁진산이나, 당제산, 신추큰산 등은 워낙 숲이 짙어서 감히 들어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멀리서 동정한 식생으로 동백나무, 후박나무, 천선과, 팽나무, 산목련, 자귀나무, 예덕나무, 꾸지나무 등을 동정할 수 있었다.

광도에 자주 눈에 띄며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는 개체는 방기와 꾸지나무(닥나무와 정확한 동정이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꾸지나무로 적겠다)이다. 꾸지나무는 털을 복슬복슬 달고 막 어린 열매를 잉태하고 있어 그 모습만 봐도 온몸이 가려움을 느낄 정도이다. 도심에서 이런 꾸지나무를 보았다면 바로 재채기가 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을 것이지만 청정해역인 광도에서는 그저 예쁜 열매로만 보인다.

폐교로 가는 길에 잡목으로는 꽤 큰 꾸지나무가 있는데 학교에서 가로수로 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나무가 학교 진입로 좌우로서 있다. 폐교의 교실 안은 이미 예덕나무가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이전에 이곳이 교실이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교실이 있었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밀림이 되어 있다. 그 위로 칙닝쿨이 지붕을 이루고 있고 송악과 방기가 열기 설기 설켜 있다. 등곶길은 이미 칙닝쿨과 환삼덩굴, 억새가 점령해서 그냥 걸어서 폐교까지 진입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3) 육상동물

인근의 평도와 소거문도와 비슷한 육상동물이 출현하고 있다. 1970년대 지느러미발도요가 광도 인근에서 대량으로 출현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흑비둘기



1977년 8월 13일 동아일보 기사

문화재청 지정 보호종 흑비둘기

흑비둘기는 일본의 류큐

(Ryukyu)열도와 쓰시마 섬의 남태평양 도서지역과 우리나라의 울릉도를 비롯한 제주도의 추자군도, 소흑산도, 가거도, 보길도, 백도 등 남해안의 일부 도서지역의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텃새이다.

흑비둘기는 국내에 서식하는 비둘기 중 체구가 가장 크고, 전체적으로 검은색으로 보이며 녹색과 보라색 광택이 있다. 부리는 검은색으로 보이며 다리는 붉은색이다.

후박나무, 누리장나무, 마가목의 열매를 즐겨 먹으며 잣나무 열매도 먹는다. 대부분 수관층에서 먹이를 찾으며 지상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드물다. 비둘기류는 흰색 알을 2개 낳는데 이 종은 흰색 알을 1개 낳는다. 산란기는 3월 초순부터 4월 하순이며 포란 기간은 약 18일이다.

울릉도에서는 검은색 때문에 ‘흑구(黑鳩)’라고 했으며, 울음소리 때문에 ‘뼈꿈새’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후박나무를 선호하지만, 상록 활엽수림에서도 생활하며, 일본에서는 기호 환경으로 메밀잣밤나무와 동백나무 등에서 생활한다. 서식지가 극히 제한적이고 번식력이 약한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는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의 Red list에서는 위기근접종(NT)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제215호로 지정하였고, 1971년에는 울릉도 사동의 후박나무 5그루를 천연기념물 서식지 제237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울릉도의 전 지역

에서 흑비둘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⁵⁾

광도 인근 백도에 흑비둘기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1978년 조사에서 7~8마리가 관측되었다가 2001~2002년 조사에서는 3마리가 관측되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광도에 흑비둘기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4) 해양생물⁶⁾

저서무척추동물 및 기타

광도 조간대암반
조사결과 총 77종

으로 해면동물2종, 자포동물 10종, 태형동물 4종, 연체동물 25종, 환형동물 3종, 절지동물 23종, 극피동물 5종, 척삭동물 5종이 서식한다. 본 도 서에서 서식이 확인된 출현 종은 굽은줄격판담치, 거북손, 주황해변해면, 홍합, 굽은결판담치, 두드럭고둥, 가지이끼벌레, 치상이끼벌레, 왕복털조개, 긴네모돌조개, 주홍방석고둥, 털껍질패지고둥, 세뿔고둥, 꼬덕새우, 돌기해삼, 아무르불가사리, 털많은가지해면, 총산호류, 새우붙이, 게붙이, 애기털보부채게, 털부채게, 등 출현하였다.



해양생물

5) 보호수

광도에는 보호수가 없다.

5) 다음백과(<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

6) 2002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라남도 여수 II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03)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광도는 조선시대에는 흥양현에 딸린 섬이었다. 이후 1895년 돌산군 삼산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에 여수군에 편입되었다. 해방 후인 1949년에 여수군이 여수시로 승격하자 여천군에 편입되어 손죽리의 자연마을이 되었다.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에 속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너푸리’ 또는 ‘광초도(廣草島)’로 불렸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도(廣島)라 개칭하였다.



일제강점기 지도

나. 마을유래

광도마을에 대한 입도설은 두 가지가 있다. 1700년대 송씨, 이씨 등이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는 설과 1917년경에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는 설이 그것이다.

광도는 본래 병풍도라 불려오다가 주변 섬에 비해 넓은 곳이라는 뜻의 ‘너푸리’ 또는 ‘광도’라고 불렸다. ‘너푸리’는 예로부터 재난을 당하지 않는 길지라고 알려져 왔다.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로 옛날 예언서에 화를 입지 않는다는 길지(吉地) 중에 ‘사림도(四林島)’라는 섬이 있다고 전해 내려오지만 그 섬을 알 수 없다. 다만 ‘너푸리’를 한역하니 ‘사림도’와 일치한다. 그래서 이 섬은 옛날부터 전화(戰禍)를 입지 않는 살기 좋은 섬이라고 한다. 2009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이 완료되어 주민 모두가 전기혜택을 받게 되었다.



광도마을

다. 광도의 어제와 오늘

인근의 소거문도와 비슷한 시기인 1700년경 노씨, 허씨, 정씨가 처음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으며 후에 송씨, 이씨, 김씨, 방씨 등이 들어와 살았다고 전한다.

1) 광도의 인구변화

광도에 인구통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1968년 10월 인구통계가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당시 기준으로 광도의 인구는 21세대 157명으로 인구수가 상당히 많았다. 5년 후인 1973년 세대수는 1가구 증가하고 인구는 6명 감소해 22세대 151명이었다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1978년에는 14가구 75명,⁷⁾ 1985년에는 11가구 45명으로 10년도 지나지 않아 인구가 1/3 이하로 줄어들었다. 1996년에는 5세대 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 상태로 계속 이어져 2011년까지 6세대 9명에 불과하였다. 최근 삼산면 해상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고향을 떠난 주민들이 10명 정도의 조립식하우스를 짓고 들어와 살기 시작해 주민등록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7) 1978년 8월 3일 조선일보 기사에 나온다. 다만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다.

인구 현황 (명)

구분	1968	1973	1985	1996	2011	2023
세대수	21	22	11	5	6	16
인구수 (남+여)	157 (80+77)	151 (79+72)	45 (23+22)	9 (6+3)	9 (3+6)	20 (12+8)

2) 광도분교 설립



광도분교 기사

손죽국민학교 광도분교는 1964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1963년 광도에서 수업이 시작된 것은 그 2년 전인 1962년이였다. 당시 광도는 정기여객선은 고사하고 전화조차 없어 봉수를 통해 평도를 거쳐 손죽도와 연락하는 형편이였다. 당연히 광도에는 학교가 없어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62년 윤경환 교사가 광도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자원하여 광도에 들어왔다. 윤교사는 마을 회관을 교실로 대용하여 7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들 40여 명에게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 역할, 다친 곳을 돌봐주는 의사 역할도 맡았다고 한다. 심지어 섬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시비를 조정하는 재판관 역할에다가 섬 발전을 위한 행정고문 역할까지도 겸했다고 한다.

이런 딱한 사정이 신문기사⁸⁾를 통해 보도되고 이듬해인 1964년 정식으로 광도분교가 설립되었다. 1967년 기사에 따르면 학생 수는 32명으로 선생님 한 명이 한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⁹⁾ 1973년까지 학생 수가 32명이였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1978년에는 17명이였으며,¹⁰⁾ 1985년에는 7명에 불과하였다.

8) 동아일보, 1963년 10월 11일, 7면, '낙도의 장한 목자'

9) 경향신문, 1967년 8월 2일, 8면, '섬 어린이에 선물'

10) 조선일보, 1978년 8월 3일, 기사 인용

3) 광도의 의료

광도에는 병원이나 약국은커녕 약방조차 없었다. 이로인해 섬 주민이 가진 의료혜택이란 광도분교에 비치된 간단한 상비약뿐이었다. 혼자 배를 몰아 여수에 가야 할 만큼 죽을병이

아니면 참고 견디는 것이 광도 주민들의 일상이었다.

이러한 광도에도 몇 년에 한 번씩 의료혜택을 받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적십자 병원선이었다. 광도에 찾아오는 적십자 병원선 무궁화호는 1977년 10월 진수한 ‘떠 있는 종합병원’이었다. 대한적십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두 척의 병원선 중 하나로 길이 30m, 폭 6m에 속력은 시속 13노트 정도였다. 서해안의 낙도민을 보살피는 백련호(76t, 1976년 8월 취항)보다 조금 컸다. 20평이 조금 넘는 진료실에는 X-레이실, 수술실, 치과, 내과, 외과에 약국까지 갖춰져 종합병원으로서 손색이 없다. 의사 3명, 간호원 3명과 X-레이 기사로 구성된 의료팀과 및 선원 등 16명이 무궁화호 식구였다.



신문기사 ‘인술의 baitgidara’

적십자 병원선이 도착하더라도 광도에 제대로된 접안시설이 없어 1백 30톤급 무궁화호가 직접 접안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배를 타고 병원선에 오른다. 그렇게 광도주민들은 몇 년에 한번 병원선에서 올라 진료받고 약을 받았다.

특히 광도분교 학생들은 기본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혈액형 검사, 구강 검사 등 각종 신체검사에다 X-레이까지 촬영하여 처음으로 건강명세서를 만들었다. 신체검사가 끝나면 각종 뇌염 등의 예방주사를 맞았다.

어른들도 진료받고 약을 받아갔는데 병원선이 자주오는 것이 아니라서 약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약을 많이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이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의사들도 약을 지어주면서 다음에 아플 때 먹을 것을 권장했다고 한다.

4) 광도의 자가발전과 삭도

광도항에서 마을까지는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다. 광도주민들이 쌀과 소금 등 일상용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60~80도에 이르는 경사지를 지게에 짐을 지고 마을로 올라갔는데 이는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러다가 2009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이 실시되면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기 위해 삭도라고 불리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삭도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2013년 12월에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조금 더 편리해졌다. 그러나 바람이 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노레일이 고장나서 잠시 방치되었다가 최근 주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조립식하우스를 짓기 위해 새로 설치하였다.



삭도와 모노레일



사용 중인 모노레일



조립식하우스



태양광설비

2009년 광도에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이 완료되었다. 발전 용량은 12Kw이다. 그동안 자가발전으로 제한적으로 가동했지만, 태양광발전 설비로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발전 용량이 작으니까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자가발전을 가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최근에는 풍력발전이 추가되어 불편이 줄었다고 한다.

5) 나로호 발사와 광도

광도와 나로호 발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로호 발사 당시에 광도 주민들은 때아닌 대피를 해야만 했다. 2009년과 2010년 나로호가 발사될 때 광도 주민 6가구 7세대 10명은 모두 여수 물으로 대피했다. 나로호가 날아가는 궤도 주변에 설정된 발사안 전 통제해역에 광도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로호가 추락할 경우를 대비해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남쪽 75킬로미터 폭 24킬로미터 통제해역을 설정했다. 평도 17세대 33명도 같은 이유로 대피했다.

6) 광도의 바람

광도는 먼바다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 바람과 파도를 막아줄 만한 것이 없어서 바람과 파도가 무서운 섬이다. 선창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입구에 설치된 주소표지판이 바람에 쓰러져 버렸다. 10여 년 전에는 계단 옆에 철제 안전펜스가 파도에 구부러져 바닥에 납작 누워버리기도 했다. 언제인지 큰 파도에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선착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다. 선창 구석에 포구를 만들기 위해 쌓아놓은 테트라포트가 뒹굴기도 했다. 덕분에 광도주민은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도록 지붕 위에 그물을 엮듯 밧줄을 엮어 돌과 큰 물통 10여 개를 매달아 놓았다. 큰바람이 불면 자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바람에 쓰러진 주소표지판



바람을 막기 위해 지붕을 밧줄로 단단히 고정

3. 섬 생활의 변천

가. 광도의 생업

광도는 현재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있어 농사를 짓거나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요즘은 낚시 포인트로 인기가 높아서 간간히 낚시배들이 갯바위에 들어온다. 손죽도에서 1시간 정도를 달려야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이다.

1) 밭농사

섬 전체의 길이는 500m 남짓이다. 광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당제산’의 정상부가 243m이다. 총면적 1km² 남짓한 섬에서 산의 높이가 200m를 넘다 보니 섬 전체가 거의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조사된 삼산면의 전체 경지 면적은 475ha로 가구당 57ha로 조사되었다.¹¹⁾ 그런데 광도의 전체 농지가 3ha이니 농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텃밭 수준으로 겨우 가족들의 푸성귀를 해결할 정도이다. 다른 지역에서 채소류 등을 조달하기 쉽지 않아 이 밭에서는 돈을 만들기 위한 농사를 지었다기보다는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광도의 주요 농작물은 고구마와 콩으로 남해안 여느 섬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정주 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농업과 어로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갈 때는 작은 경작지라도 일구어서 곡식을 가꾸고 채소밭으로 활용하였다. 지금은 상주하는 주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작할 만한 노동력이 없어서 밭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목전이 되어버렸다. 광도를 항공사진으로 보면 바닷가



집 마당 텃밭

11)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三山面誌』, 삼산면지발간위원회, 2000. p341.

바위와 민가 지붕, 그리고 마을 안 소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정글로 이루어져 있다. 농사라고는 집 마당에 있는 채소밭이 전부라서 농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없다.

3) 논농사

광도에서 논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나 증언을 찾아볼 수 없다. 섬이 워낙 적기도 하지만 실지 섬 전체의 경지 면적이 3.0ha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만한 땅이 없었다.

논이 없었기 때문에 삼산면 지역에서는 지붕의 재료로 이용되던 볏짚을 고흥이나 장흥, 낙안 등 육지에서 구입해 왔다. 볏짚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남모래이’나 ‘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남모래이는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3) 어업

삼산면의 여러 섬에서 어업만으로 생계를 잇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광도의 경우는 가파른 경사지에 있는 작은 텃밭 정도의 땅이 전부라서 어업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로 해초를 채취하거나 암석해안에서 갯바위 낚시를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광도의 주요 해산물로는 주변에 바위들이 많아서 김과 미역은 많지만, 자갈이나 빨모래에서 사는 어패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광도 주변의 검은여, 꾸벅드리, 시리여, 농여, 검등여, 보튼여, 가리여, 큰여 등은 낚시꾼들에게는 최상의 포인트이다.



광도 미역(2008)

나. 광도의 생활문화공간

광도는 넓은 곳이라는 뜻의 ‘너푸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원래는 깎아지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고 하여 ‘병풍도’라고 하다.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고흥군에서 여수시로 개편되면서 주위 섬들에 비하여 넓다고 하여 지명에 한자를 음차하면서 넓은 광자를 써서 광도라고 했다고 한다.

1996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에는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어 5가구 10명이 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중 남자 7명 여자 3명이다. 1999년 2월 28일 기준에는 7가구로 1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들에서 보면 광도는 다른 섬이나 도서들이 남자들이 적고 여자가 많은 것에 비해 1999년 조사전까지 근소한 차이지만 광도는 여자가 적고 남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자들이 물질 등으로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일찍 사망하였거나 살기가 팍팍한 작은 섬이라서 시집을 오거나 하는 사람이 적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광도는 섬의 면적이 아주 작은 섬이다. 대개 이런 작은 섬들은 식수 걱정이 가장 많다. 거의 대부분 우수를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갈수기에는 주변 섬에서 지원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많지만, 광도는 다른 섬 지역과 다르게 우수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조사 당일 몇 가구 안 되는 집들을 일일이 돌아봤는데 집숫물을 받는 우수 통이나 지붕 위에 있는 커다란 파란 물통은 보이지 않는다.

섬에 가보면 집숫물을 받기 위한 처마 끝 우수받이 시설과 집수정, 그리고 지붕 위로 드러난 지붕보다 더 커다란 파란 물통이 섬의 풍경이 된다. 하지만 광도에서는 우수받이나 집수정, 파란 물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광도의 매우 큰 특징이자 다른 섬지역과의 차별화된 광도만의 장점이기도 하다.

산이 높고 숲이 짙어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수 걱정이 없다고 한다. 광도의 ‘큰산’ 이름도 ‘드렁진산’이다. ‘드렁진’은 산의 형상이 들어앉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깊숙이 들어앉아 모든 것이 풍부한 이미지의 우리지역 방언이다. 산 이름에서 숲이 매우 짙었고 그 속에 식생들이 풍부해 물을 가두는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도의 유일한 상시 거주자 이인택 씨¹²⁾의 말에 따르면 논 샘물이 풍부해서 이 물로 충분히 식수뿐 아니라 생활용수도 충당할 수 있어 우수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12) 이인택 씨는 1956년생으로 원래 서울이 고향이고 광도에 내려온 지 5년이 되었다.

광도의 큰 굴은 깊이가 깊어서 예로부터 난리가 나도 숨는 장소로 알려져 왔다. 1970년대 거문도 간첩사건 이후 남해안 일대에 간첩선과 간첩이 출몰해 은신처가 될 만한 동굴들은 모두 입구를 막아버려서 큰 굴도 입구가 막혀있다.

정감록¹³⁾에 등장하는 사림도라는 섬이 광도라고 전해지며 이 섬은 어떤 난리가 나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난 줄도 모르고 지내는 길지라고 전해진다. 이는 동굴 때문이라기보다 워낙 낙도오지여서 난리 등을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나 싶지만 정감록 같은 예언서에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 시기에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간샘



집수정

논샘물을 끌어다가 마을 어귀의 중간샘에 모아 그 물을 다시 10톤 정도 되는 중간 물통인 집수정에 받아서 집수정에서 집집마다 수도를 연결해서 마을 전체가 수도물로 쓴다.

광도는 섬의 서남쪽 끝에 꼬리 같이 튀어나온 꼭지라는 곳에 배가 닿는다. 아직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고 시멘트를 대충 부어 만든 곳에 배가 접안을 한다. 접안시설로부터 마을로 가려면 바위를 기어올라야 한다. 웬만한 장정들도 마을까지 불과 50여 미터 되는 거리를 곧바로 오를 수 없을 만큼 깎아지른 절벽 위에 마을이 있다. 이렇게 깎아지른 절벽을 짐을 가지고 오르내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장에서부터 마을까지 짐 이동용 케이블을 깔아서 짐을 이동한다. 섬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지만 이것이 광도만의 또 다른 풍경이 되기도 한다. 짐은 케이블카로 보내고 깎아지른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 마을이라고 할 것도 없는 집들이 보인다.

13) 《정감록》(鄭鑑錄)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예언서로 《송하비결》과 《격암유록》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예언서로 꼽히고 있다. 실존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심(李沁)과 정감(鄭鑑)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풍수 사상과 도참 신앙이 합쳐져 이루어진 난해한 책으로, 국가 운명과 생민 존망(生民存亡)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다.



광도를 오르는 가파른 언덕



자가발전소

선착장을 막 내리면 케이블카 노선 옆으로 정면 바위 위에 우뚝 솟은 막사 한 동이 바로 광도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이다. 원래는 자가발전을 하면서 제한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었지만,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에 259백만 원(국비 181백만 원, 도비 39백만 원, 시비 39백만 원)을 들여 12k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확충하여 지금은 제한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다. 기후변화대응 전략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여 지구온난화 진행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이 이슈화되면서 2009년부터 여수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보이고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뛰어들었다. 일찍부터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완비한 광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진지로 각광받으며 선진지 비교답사 견학지로 선택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비경을 간직하고 있는 여수시 삼산면 초도, 손죽도 일원에 ‘해상풍력발전 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 역만도, 평도, 광도, 무학도 일원 공유수면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들어서는데 4개 사업자가 참여한다고 한다. 이 사업에는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자금이 투입돼 8메가와트(MW)급의 발전시설 수십기가 삼산면 일원 바다에 빼곡하게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총 2기가 와트(GW)로, 여수산단을 비롯한 시내 일원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인택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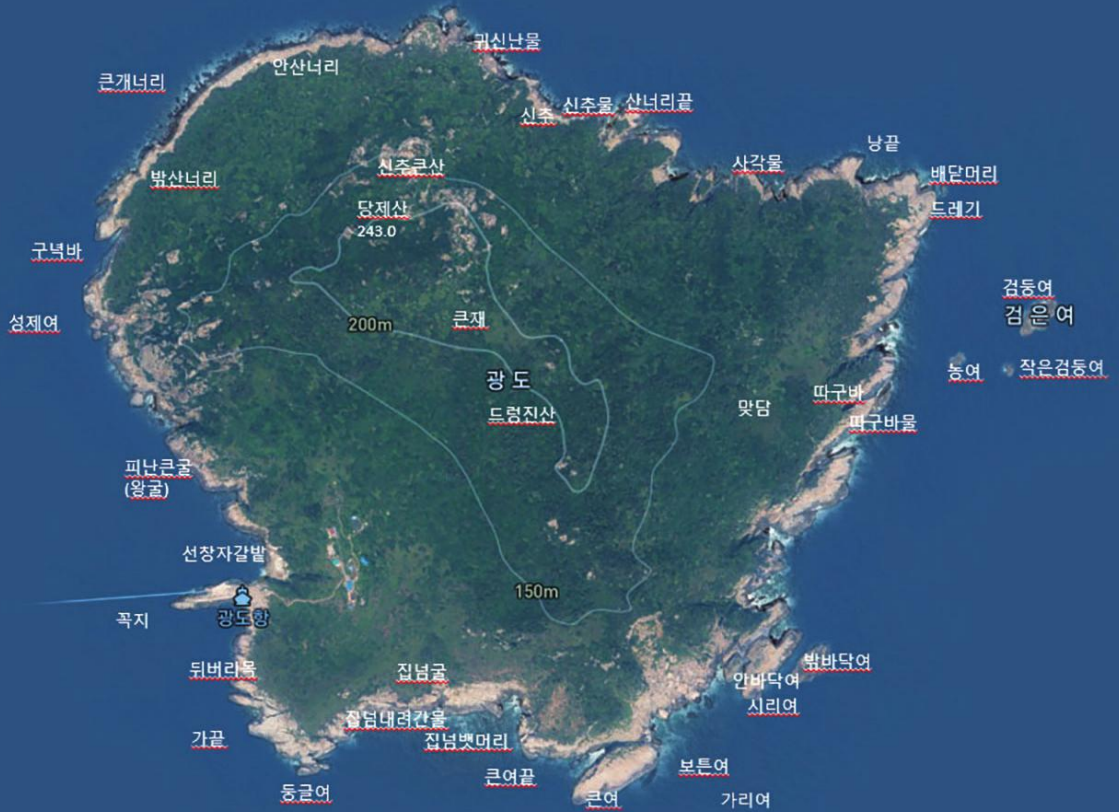
현재 실제로 광도에 상시로 살고 있는 주민은 서울에서 이주해온 이인택씨¹³⁾ 한 명이다. 이인택 씨의 가족들은 섬에 들어와 살려고 하지 않아 도시에 살고 있고, 가족들과 떨어져 섬에서 혼자 살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민은 10가구 정도 된다. 3가구 정도 살던 섬에 풍력발전 때문에 주소만 옮기고, 실지 생활은 여수 등 도회지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가끔 들르는 경우이다. 풍력발전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인근 손죽열도의 부속 섬들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풍력발전 주관사에서 주민 보상으로 1년에 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다보니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몇 가구 안 되는 집들은 모두 새로 짓거나 수리하여 최근에 손을 본 집이다. 풍력발전 지원을 받아 새로 지은 집들이라고 한다.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로 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섬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등도 찾아보고 섬을 개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섬에 사람이 찾아들고 그들이 쉬어가는 휴식의 장소가 되게 하려면 주요 관광지나 섬 숙박업소와 식당 등을 연계하여 승선비 할인이나(섬 상품권 개발) 이웃 섬과의 연계 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4. 광도의 민속문화

가. 광도의 지명유래



- 【고개】
 - 큰-재 : 마을에서 맞닿으로 넘어가는 고개

- 【곶】
 - 가-곶 : 광도 남서쪽 끝 해변
 - 낭-곶 : 광도 동북쪽 끝
 - 산-너리-곶 : 광도 북쪽 당제산 아래의 긴 너럭바위 해변으로 안산너리, 박산너리, 신추산너리로 나뉜다.
 - 큰-여-곶 : 광도 남단에 있는 큰 여 앞의 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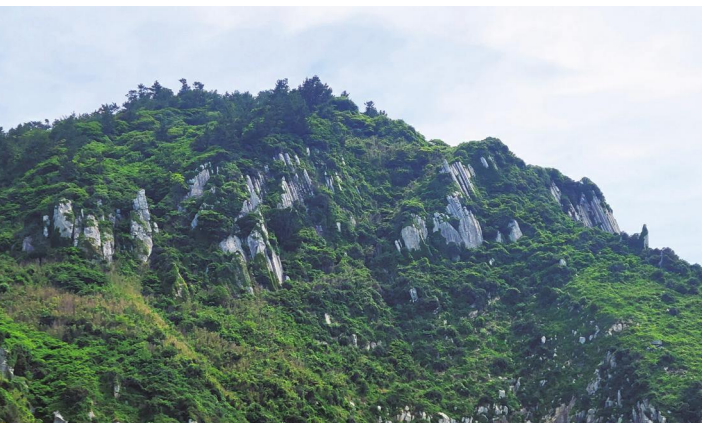
- 【굴】
 - 따꾸-박-굴 : 광도 동쪽에 있는 굴로 굴내부가 2층으로 되어있는데 1970년대 남해 안에 간척들이 자주 출몰하자 굴입구를 막아버림
 - 집-넘-굴 : 광도마을 남단의 해안에 있는 굴

- 【너리】
 - 큰-개-너리 : 광도마을 북서쪽 끝 신추에 있는 큰 너럭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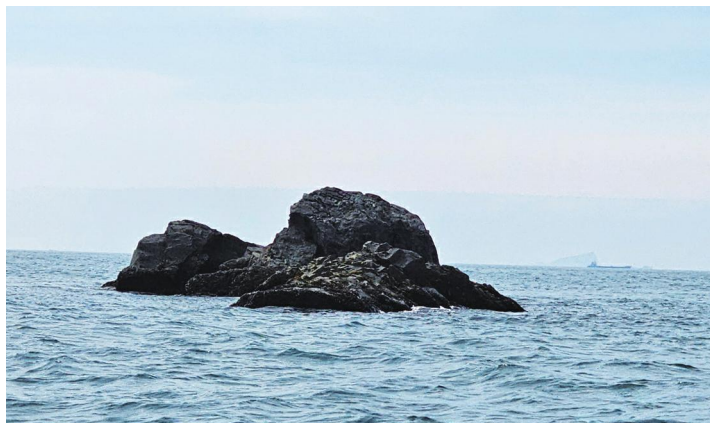
- 【도로】
 - 신추-간-질 : 광도마을에서 북쪽 신추로 가는 길

- 【마을】
 - 맞-땀 : 광도마을 동쪽으로 마파람이 강하게 달던 지역

- 【산】
 - 당-제-산 [신추-큰산] : 광도마을 북쪽에 있는 해발 243m의 산으로 당집이 있었음
 - 드런진-산 [드렁진-산] : 광도마을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산의 형상이 들어 얹힌 모양으로 보임



드렁진산



작은검등여

- 【선착장】 • 배-닷-머리 : 광도마을 서쪽에 있는 해안으로 배가 닿았던 머리
- 【섬】 • 동글-섬 : 광도마을 남쪽 끝에 있는 작은 섬
- 【여】 • 가리-여 : 광도 동남쪽에 있는 여(바깥 가리여, 안 가리여)
 • 검등-여 : 광도마을 동북편에 있는 검은 바위로 된 여(큰 검등여, 작은 검등여)
 • 농-여 : 검등여 서쪽에 위치한 장릉처럼 사각으로 생긴 여
 • 보튼-여 : 광도마을 동남쪽 가리여 옆에 있는 여
 • 시리-여 : 광도마을 동남쪽에 있는 여로 시루처럼 생긴 여
- 【지역(곳)】 • 꼭지 : 광도마을 앞 선착장 남단에 있는 꼭지 모양으로 튀어나온 곳
 • 꾸벅-드리 : 광도마을 동남쪽에 있는 지역
 • 드래기 : 광도마을 동북쪽에 있는 낭끝 윗 지역
- 【지역(물)】 • 귀신-난-물 : 광도마을 북쪽에 있는 해안으로 귀신이 나온 곳이라 함
 • 따꾸-밭-물 : 광도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해변
 • 사각-물 : 광도마을 동북쪽 낭 끝에 있는 해변
 • 신추-물 : 광도마을 서북쪽에 있는 작은 해변
 • 진-남-내려간-물 : 광도마을 남쪽에 있는 해변

나. 광도의 설화와 민요

사림도(四林島) 전설

옛날 예언서에 의하면 사람이 화를 입지 않는다는 길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림도’라는 섬이 있다고 전해 내려온다.

그렇지만 그 섬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광도의 우리말 이름인 ‘너푸리’를 한역하면 너는 너 혹은 넷을 의미하는 ‘넉 사(四)’가 되고 푸는 풀을 의미하는 ‘수풀 림(林)’이 되어 사림도가 된다. 그래서 이 섬은 옛날부터 전쟁의 피해가 없는 살기 좋은 섬이라고 전한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도 광도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다. 광도의 음식문화

광도 역시 밭농사를 지었으나 섬이 작고 산이 높아 많은 농사를 짓지 못했다. 부족한 음식을 어업 활동을 통해 조달했다. 따라서 광도의 음식 역시 인근의 평도와 소거문도와 비슷하였다. 주로 보리와 고구마가 주식이었고, 산에서 자생하는 먹거리를 많이 찾아 조리해서 먹었다. 현재는 텃밭에서 나는 옥수수, 콩, 양파, 마늘 등을 재배하여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광도 사람들은 손죽도와 평도처럼 막걸리를 빚어 먹었다. 힘든 바닷일을 하다가 허기가 지면 한잔 쪽 들이켜 허기를 면했기에 광도주민들에게 막걸리는 일종의 식량이었다. 그래서 광도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밀주 단속을 하던 시절에도 끊이지 않고 술을 빚었다. 지금은 광도가 고향인 사람은 광도에 상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내려와 살고 있어 안타깝게도 막걸리의 맥이 끊어졌다.



부엌

라. 광도의 신앙

1) 당제

광도에서 언제부터 당제를 모셨는지 전해오는 문헌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다. 광도 마을 북쪽에 있는 큰산 기슭에 ‘징관이’라고 부르는 곳에 당집이 있었다. 당제의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이다. 광도는 음력 선달그믐날에 당제를 모셨다. 당주는 집안에 우환이나 초상, 출산이 없는 가정 중에 깨끗한 사람을 선출하였는데 당주로 선출되면 몸가짐을 조심하여 상가를 가지 않는 등 금기가 많았지만, 인구가 적어 어르신 몇 명이 돌아가면서 맡았다고 한다.



당산

제주가 음력 선달그믐날에 당집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개나 소 등의 짐승이 울지 않도록 했으며, 마을 사람들도 불을 켜지 않고 경건하게 보냈다. 당제의 진행순서는 다른 마을과 비슷하게 제물을 진설하고, 삼헌을 하면서 잔을 올리고 재배했다. 당제를 지내면서 광도 주민의 무사안녕과 풍년, 풍어 등을 기원했다.

광도는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할아버지와 할머니 몇 명만 남게 되자 더 이상 당제를 지내지 않았다. 당제와 관련한 특별한 영험담은 전해지지 않으나 예전 마을에 큰 변고가 없었던 것이 당제를 지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2) 기독교

광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1983년 구주현 목사가 입도하여 2년 정도 노력하였으나, 주민의 수가 적고 어려움이 있어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폐쇄하였다.

